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 전적지를 가다](54)

제2부:베일벗는 일본군 실체-41 4)해안특공기지 (1)서우봉  
연합군 상륙함정 타깃 특공기지 비밀리 건설

입력 : 2007. 02.08. 00:00:00



▲일본 해군의 비밀특공기지로 건설된 서우봉해안가 갱도를 취재팀이 실측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구조 치밀 완성도 높아 주목...인위적 훼손 우려 대책 시급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해동 해안가. 서우봉(해발 111m) 자락이 바다로 흘러든 곳에는 검은 현무암과 깨진 자갈들이 널려 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둥글넓적한 돌과는 달리 깨진 파편들은 무더기로 쌓여있다. 서우봉 해안 자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945년 2월이 되면 일본군은 제주섬에서 본격적인 갱도진지 등 지하참호 구축에 들어간다.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제주도를 최후의 저항요새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 해군도 특공정의 비밀기지 건설을 시작한다. 제주해안의 주요 거점에 갱도를 파고 특공정을 숨겨놓았다가 미군 등 연합군의 함정에 자살공격을 감행하려는 작전을 비밀리에 준비한다. 해안요새에는 일본 해군 특별공격대인 '진양'(震洋)을 비롯 '카이텐'(回天)등이 실제 배치되거나 배치될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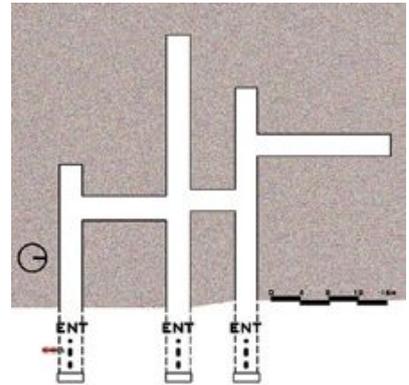


▲서우봉해안 갱도 내부에서 바라본 모습. 바다가 거의 맞닿아 있다.

취재팀이 찾은 서우봉 해안은 바로 60여 년 전 전쟁야욕으로 가득했던 일본군의 특공기지가 은밀히 숨겨져 있는 것이다.

파도가 출렁이는 해안을 따라 가시덤불을 헤집고 들어가자 시커먼 입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갯도는 단단한 암반을 뚫고 만들어졌다. 바닷가 쪽에 수북이 쌓인 깨진 자갈들은 갯도를 뚫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린 도로코를 따라 운반해온 파편들이다. 실제 이 갯도를 만들기 위해 함덕·북촌리 일대 주민은 물론 육지부에서까지 강제 동원됐다고 함덕 주민인 김병석씨는 증언한다.

취재 결과 서우봉 해안에는 모두 18개의 갯도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그 길이가 120m 정도 된다.<도면> 입구는 모두 세 곳으로 동쪽을 향해 뚫려 있다. 갯도 높이와 폭은 3m 안팎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세 곳의 갯도 입구에는 너비 345cm, 폭 300cm, 높이 120cm 정도 되는 구조물이 각각 설치돼 있다. 외부로부터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한 은폐나 엄폐를 위한 시설물인 것이다.



▲도면

이 갯도는 서우봉 특공기지의 지휘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갯도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치밀하게 만들어져 당시 일본 해군특공기지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으로 꼽힌다.

나머지 갯도들은 10~30m 안팎으로 모두 해안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갯도 내부에 해안에서 밀려온 쓰레기 등이 널려 있어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 [현장인터뷰/함덕리 전 노인회장 김병석씨]"초등학생까지 갯도공사 동원"



함덕노인회장을 역임한 김병석씨(77·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는 서우봉 특공기지에 대한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다.

김씨는 1945년 2월 함덕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던 당시 일본군들이 갯도 구축 공사에 동원돼서 그해 8월 15일 광복때 까지 서우봉 특공기지에서 일을 했다. 그 때가 만 15세로 일본군들은 당시 20세 이상은 강제징용·징병을 하고, 그 이하는 근로봉사대에 소속시켜 노역을 시켰다고 말했다.

"당시 함덕국민학교 건물에 일본군 '스이(翠)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스이부대는 동복·김

녕까지 관장을 했죠. 그 수는 대략 5백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때 면사무소에서 집으로 통지가 와서 근로봉사대에 소속된 채 서우봉 해안에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김씨는 "일본군과 징용된 사람들은 굴(갯도)을 뚫고 다이너마이트 발파를 하면 깨진 파편들을 도로코를 따라 바닷가에 버리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굴을 파는 현장에서는 아침 8시쯤부터 저녁 6시쯤까지 일을 했고 점심은 일본군들과 같이 먹었다. 밥은 주먹밥 한 덩이를 얻어먹은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 굴 앞에는 전부 바닷가 쪽으로 철로를 깔아 도로코시설이 돼 있었다. 하지만 광복 다음해 무렵 고철이 돈이 된다고 해서 없어졌다.

"서우봉 해안가에 징용된 사람들은 육지부에서 온 기술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마를 한 번 내리칠 때 마다 '헛일이여 헛일이여' 하고 중얼중얼 거렸죠. 지금 생각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침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김씨는 서우봉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진드르비행장으로 이동 원당봉에서 신촌까지 자동차 도로를 뿜는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 그곳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서우봉에서 종전때까지 일을 했다.

김씨는 서우봉에서 굴을 파면서 미군기와 일본기의 공중전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막 더워지는 무렵인 1945년 6월쯤입니다. 서우봉에서 굴을 파는데 미군함재기 2대와 정뜨르와 진드르에서 각각 2기씩 발진한 일본기가 조천 앞바다에서부터 북촌까지 해상에서 공중전을 하는 것을 지켜봤죠. 동북을 넘어가자마자 바로 미군함재기가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때 진드르비행장은 현재 제주시 삼양검문소에서 신촌까지 흙으로 다져서 활주로 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경비행기 정도는 충분히 뜰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심했던 공출에 대해서도 기억을 끄집어냈다.

"쌀이나 낫그릇 뿐 아니라 소·돼지·수산물을 공출해 갔고, 장작공출도 심했습니다. 장작공출의 경우는 함덕국민학교에 주둔한 일본군들이 밥을 해먹기 위해서 1가구당 2m 정도 길이의 노끈으로 묶을 만큼 분량을 보름에 한 번씩 해서 집밖에 내치면 부대 마차인 구루마가 와서 싣고 갔습니다. 갈치의 경우도 테우를 이용해서 한 구덕을 낚아오면 큰 것부터 대부분 가져가버려서 작은 걸로 겨우 5분의 1정도만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죠."

김씨는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강제로 동원돼 일을 해도 점심으로 주먹밥을 주니까 다 이해하고, 대일본이 설마 지겠느냐는 가벼운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는 나라를 빼앗긴 것에 울화통이 치밀고 당시를 생각하면 끔찍한 기억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